

서거석 교육감, 현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에 “사필귀정… 민주주의 바로 세워져”

“국정 혼란 최소화 중요… 학사일정 추진·학교 안전 만전 기해야”

전교조 전북지부·전북교총 등 도내 교원단체들 “현재 결정 존중”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4일 한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교육감은 “2025년 4월 4일은 민주주의가 바로 선 역사적인 날”이라며 “역사적인 현장을 함께 지켜보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순간이었고, 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루 빨리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며 “무엇보다 차질 없는 학사일정 추진과 학교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그 어느 때보다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며 “우리 모두가 지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헤

쳐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사노조 등 도내 교원단체들도 한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공교육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한 안전한 교육 여건 마련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ESG 공모전 성료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3일 본관에서 ESG 경영실현 활성화 및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구성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모전에서는 디지털 혁신, AI 기술 활용, 자원 순환 등 ESG 전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 과제들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물리치료학과 이원희 교수가 수상했다. 학과별 전공과목을 디지털 교재로 개발하고, 태블릿 PC 기반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제안으로, 교육의 스마트 전환과 친환경 실천을 동시에 담았다. 또 우수상을 받은 정보전산지원센터 윤재환 센터장은 AI를 활용한 맞춤형 입시상담 플랫폼을 제안했다. 데이터 기반의 상담 자동화로 입시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 효율 측면에서도 ESG 가치 실현이 기대된다. 끝으로 장려상은 교학지원실 정해진 직원의 비전 나눔 장터 프로젝트로, 교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지역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자원 재활용과 대학 홍보 효과를 동시에 노린 아이디어였다. 우병훈 총장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제안들이 대학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ESG 실천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내년 3월 개원 예정

신설유치원 원명 공모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은 2026학년도 3월 개원 예정인 (가칭)전주백석유치원 원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 18학급 규모의 (가칭)전주백석유치원은 송전동 에코시티 내에 설립될 예정이다. 공모에는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등 전북특별자치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기간은 7~17일까지다. 원명은 지역의 특색과 역사가 반영될 수 있는 이름, 부르기 쉽고 친근한 어감을 갖고 있으며 교육 구성원들의 꿈과 이상이 펼쳐나가는 교육의 장이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 타 원명과 중복되거나 혼동이 되지 않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주교육지원청 누리집(https://office.jedu.kr/) 정보마당·공직사항에서 공모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팩스(063-255-9221)또는 이메일(shc626@jedu.kr)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원명은 전북특별자치도 독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4일 고창교육지원청에서 유정기 부교육감 주재로 행정실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재정 운용·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등 의견 공유

유정기 부교육감 주재 고창지역 행정실장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4일 고창교육지원청에서 유정기 부교육감 주재로 행정실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창 지역 공·사립 행정실장 30여 명이 참석해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설명과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참석한 행정실장들은 교육재정 운용,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업무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

전북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업무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3~4일 이틀간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2025학년도 학업중단예방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증가하고 있는 학업중단률을 낮추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생 학업중단률은 2022년 1.79%, 2023년 1.95%, 2024년 1.99%로 증가 추세다. 다만,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후 학업복귀율이 2022년 58.6%에서 2024년



62.3%로 높아지면서 숙려제 운영이 학업 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새마을동아리 ‘새싹’ 발대식… 장학금 수여

창립 1년만에 150명 규모로 성장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2일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새마을동아리 ‘새싹’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5명의 소규모로 시작된 이 동아리는 창립 1년 만에 150명 규모로 급성장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주시새마을회 송병용 회장, 새마을지도자전주시협의회 박창성 회장, 전주시새마을부녀회 유선영 회장, 새마을문교전주시지부 한복순 회장, 전주시새마을회 전지수 사무국장, 인세미 지도과장 등과 전북대학교 및 전주대학교의 새마을 동아리 임원진들도 함께해 지역 대학 간 교류의 장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리움종합건설(주) 박은 대표이사, (주)삼광ENG 김정환 대표이사가 참석해 총 90만 원의



전주비전대학교는 지난 2일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새마을 동아리 ‘새싹’ 발대식을 개최했다.

장학금을 동아리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학생들은 나눔과 협동의 정신으로 더 나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학생 자치활동의 새로운 모범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와의 연대 속에서 성장하는 대학 모델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문화재단은 지난 4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와 예술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아동 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전주문화재단-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MOU 체결

이달부터 지역 초고 대상 예술교육 연간 200회 추진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지난 4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허대중)와 예술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 대상 서비스 연계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상호 노력 등 기타 상호발전과 공동목적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8개교, 17개 학급, 약 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작되며, 학급별 규모에 맞춰 소그룹으로 이뤄진다. 참여 아동들은 2명의 예술인과 각각 2~3회씩 만나 총 5회에 걸쳐 예술 활동을 체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올해 총 200회의 예술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지역과 학교를 잇는 예술교육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 학교, 예술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허대중 센터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지속 가능 창업생태계 조성

전주대,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역 인력 양성 지원 수행기관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2025년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역 인력 양성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역 정착형 기술기반 취·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 혁신 선도’라는 비전을 목표로 2016년부터 9년간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지역 청년 및 예비 창업자의 기술기반 역량을 강화하고, 전북특구 내 취·창업 네트워크 확장 및 내부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지난 4일 전주대에 따르면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술창업자 발굴 및 육성과 더불어 다양한 취업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청년 인재들이 창업 및 취업을 위한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디딤터 기반 우수 창업 아이템을 선발하고 선정된 창업자들에게는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창업 초기 단계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특히, 지역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기업의 채

용 수요를 조사하고 인턴십 및 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디딤터 기반 산학연 및 공공기술 연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을 창업자와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을 돕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상우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장은 “전북특구의 거점대학으로서 지역 산업과 연계한 기술 기반 창업과 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실무 중심의 창업·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역 인력 양성 지원사업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전북테크비즈센터를 기점으로 디딤터 기반 예비 창업자, 지역 내 기술기반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실무 중심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

우석대,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 선정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에 9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가의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마련하고, 전공과 연계된 기업에서의 실무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업 수요에 맞춘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실제 취업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르면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수행해 온 우석대는 지난해까지 30억 4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재학생 1420명에게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

한 바 있다. 올해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3억 9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100여 개 기업과 협력, 학생들의 희망 직무에 맞는 산업체 실무 중심의 국가근로장학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노준 총장은 “우리 대학교가 9년 연속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에 선정된 것은 학생들의 실무 경험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도 학생들이 전공과 연계된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